

#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예술가 숙명... 여전히 변화 중”

예술가에게 작품은 분신과도 같다. 자신의 페르소나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변형을 하고, 새로운 기법을 구사해도 작품의 근저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사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신만의 작업 방식, 기법이 작품 배면에 투영되는 것일 터다.

경계를 넘는다든가,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예술가를 예술가로 존재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생명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변한다. 변화무쌍한 창작의 길을 가는 작가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새로움, 그것이 주제는 기법이든 재료적 부분이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시도는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와 조화의 길항에서 예술의 미학은 구현된다.

목포 출신 김대원 화백은 그동안 추상과 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열어왔다. 특히 그의 한국화 작품은 전통회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점차 영역을 확장, 진화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원 화백의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암 김대원 화백 시리즈 1'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하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진행 중인 전시는 초기의 수묵화 대작 등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실경을 담은 대형 화폭은 무더위를 씻어주는 밝은 기운과 화사함, 청량감을 선사한다.

“제 작품은 초기 산수화시대, 채색 비구상시대, 수묵 비구상으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산수화만 내걸었습니다. 초기의 실경을 담은 수묵화 대작들과 다양한 스케치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이지요.”

희끗희끗한 흰머리에 정바지 차림에선 청년의 분위기가 묻어났다. 창작에 대한 열정이 젊은 작가 못지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 김대원 전 초대 미대 교수 전시

### 11일까지 동구 수하갤러리

### 실경 담은 초기 대작 등 선배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 중간중간에 예술 여정을 가능할 수 있는 포스터, 전시 내력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부착되었다. 창작에만 매달려온 ‘그림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천상 예술가라는 사실을 말없이 웅변하는 듯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 모두 파도의 물빛이 달라요. 동해만 바다는 보랏빛을 띠고, 남해는 푸른 물결이 인상적이죠. 그에 반해 서해는 검푸른 빛깔을 보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더위 동해바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다 압력 사이로 솟구치는 파도의 물결은 마치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김 화백은 조선대 미대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재임 중이던 초창기, 지역 화단의 분위기는 산수화만 그리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학생들에게 산수화 외에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을 오가며 인문화, 채색화 등을 공부했다”는 말에서 지난한 과정이 가능되었다. 7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대에 재직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또한 자신도 배우며 창작의 세계를 넓혀왔다.

김 화백은 “그동안 모두 27회에 걸쳐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번은 그동안 작업해왔던 작품들을 반추해보는 시간”이라며 “열정 가득했던 초창기 작품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젊은 시절 그렸던 대형 실경 작품은 대담한 필치

가 인상적이다. 붓끝에서 거칠 것 없는 힘이 느껴지는데, 어떤 변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를 품고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산수 외에도 예술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 등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제 스스로의 ‘검질’을 깨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의 작품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초기 산수화를 거쳐 채색 비구상, 수묵 비구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화순군립석봉미술관에서 열렸던 기획초대전 당시 강민우 학예연구사는 이렇게 평한 바 있다.

“작품의 변화 속에서는 전통회화를 배제한 현대 미술로만 이해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본질을 탐구한 전통회화의 근본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즉 한국화라는 정형화 되어있는 구분과 경계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으로 작가만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김 화백이 지향하는 작품의 방향은 다양한 시도와 변화다. 게으름이나 안일함, 진부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현대미술과 한국화의 융합을 매개로 전통회화의 방향을 모색해왔고, 앞으로의 여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렴될 것 같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전시를 할 예정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지나온 시간을 유추하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신작의 느낌은 또 다르다”는 말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림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떠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힘들어서 회화는 안할 것 같습니다.(웃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원 화백이 광주 동구 수하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전시를 연다. 작품 '긴 침묵'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 화백.

## 지나온 삶과 내면의 감정, 선으로 구현하다

### 윤부열 초대전, 28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획’(劃)의 사전적 의미는 “글씨나 그림에서, 붓으로 그은 선이나 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작가들 특히 화가들은 저마다 창작을 하는 데 있어 개성적인 획을 활용한다. 선은 여타의 작품과 변별되는 개성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다.

윤부열 작가의 획은 자유롭고 즉흥적이다. 유려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필치는 작가의 내면에 드러워진 상상의 불씨를 역동적으로 견인한다.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선들은 창작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듯하다.

윤부열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금희)에서 열린다.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지는 ‘劃:향, 한 그루’전은 감각적인 선이 돋보이는 청년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드로잉 작품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아크릴 작품 등 20여 점이 출품됐다.

윤 작가의 작품은 인간관계, 죽음, 가족에 대한 사랑 등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와 가치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나온 삶과 이에 결부된 내면의 감정을 작가는 리드미컬한 선과 감각적인 움직임의 매개로 구현했다.

그동안 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선’을 매개로 서사화 해왔으며, 기저에는 유려한 선과 즉흥적인 붓질이라는 감정의 흐름과 시간의 연속이 녹아 있다.

한편 정금희 박물관장은 “예술적으로 구현된 선과 획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을 느끼게 한다”며 “특히 사색에서 길어올린 인간과 가족, 사랑이라는 모티브는 진정한 울림을 선사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윤부열 작가의 '劃:향, 한 그루' 전



지난 1월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펼쳐진 제1회 올클레프 정기연주회. <올클레프뮤직컴퍼니 제공>

## 어린이를 위한 ‘밤비노스 아티스타 콘서트’

### 올클레프 전남·광주음악협회, 10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뜨거운 여름을 맞아 지역 클래식 예술 동량들의 신인 데뷔무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일(오후 3시, 7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1회 밤비노스 아티스타 콘서트’는 그중 하나다.

올클레프 전남·광주음악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이탈리아어로 ‘아이’를 뜻하는 ‘밤비노(Bambino)’다. 아직 어린 학생 연주자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낸다는 의미를 투영했다.

연주회의 막은 조하영, 김현진, 장나진이 낭만주의 시대 피아니스트 스트리아복의 작품 ‘볼레로’로 연다. 이어 알렉스의 ‘겨울바람, 리베르탱고’, 김리원·강성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메들리’를 연주할 예정이다. 브람스가 집시 음악을 재집해 완성한 모음곡 ‘헝가리 무곡 5번 G단조’는 전 해울, 강성하의 선율에 실린다.

가요 및 영화음악 등 대중적인 노래들도 레퍼

토리에 있다. 영화 ‘스팅’ OST인 ‘엔터테이너’는 김아민·박준희·김아린이 연주하며 거북이의 ‘비행기’는 김은율, 이가영이, 태연의 ‘제주도 푸른 밤’은 백해원, 최슬아가 들려준다.

이 밖에도 벨라와 루카스 곡 ‘A whole new world’는 한정민·강성하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피아노 맨’은 김구름·장나진이 전한다. 이수빈과 장나진이 연주하는 ‘파기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 Var.18’과 ‘페르글레티 모음곡 중 산속 마왕의 궁전에서’도 귀를 즐겁게 한다.

올클레프 김아람 대표는 “솔로, 포핸즈, 식스핸즈, 에잇핸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가들이 협연하는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와 배경, 스타일이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기획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이호동 시인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시 공모전’ 10월 4일까지

올해로 교직원 생활 20년차인 이호동 교사는 ‘사명’이 있다. 작가와 강연가, 학교폭력예방운동가, 전문상담가 등 다양한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목표는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3월 처음 교직을 시작할 당시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교실이 아닌 밖으로 나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 시절 자신처럼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 학

폭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따스한 바람’이 되고 싶어 글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펴낸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활동가 이호동 시인이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시 공모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

오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희망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시 3편(한글파일, 첫

줄에 지역, 이름, 나이 기재)을 응모하면 된다. 제출은 이메일(muzuc78@naver.com)로 하면 되며 결과는 오는 10월 7일 이 교사의 블로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0만원을 비롯해 특상 10만원, 금상 10만원, 은상 10만원, 동상 10만원이 주어진다.

이 교사는 “이번 공모전은 ‘학교폭력은 살인이다. 학생만이 희망이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또한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